

《碧鷄漫志》譯註(1)*

이 태 형**

〈目次〉

I. 서론

II. 《碧鷄漫志》역주[서문~1.9조까지]

I. 서론

남송 초기 사론가 王灼은 중국사문학사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쓴 《碧鷄漫志》는 최초의 사론서로 현존하는 사론서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음악과 사체의 관계, 사체의 기원 문제, 사학비평, 사학유과, 詞曲 고증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비평하고 있다. 비록 이전시기에 전문적인 詞論이나 詞評이 있긴 하였으나,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사학비평에 있어서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당시에 비교적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詞話學을 제시하여 다른 단편적인 사학이론을 제시한 이들과 비교해볼 때 진보적이고 완정한 것이다. 남송 초기에 왕작이 이 책을 씀으로써 최초의 체계적인 사학이론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사학비평과 미학표준, 사학비평의 역사적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이론과 실천, 주관과 객관, 역사와 논리가 통일된 사회로 사학이론서의 표준이 되었다. 본고는 1권을 역주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032).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것으로 여기에는 唐宋이전의 詞文學 역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는 중국사문학의 계통과 이론 등을 비교적 논리적이면서 역사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평하고 있다.

中國詞學史에서 《碧鷄漫志》는 송대 3대 詞話書중의 하나로, 사의 이론과 실천, 주관과 객관, 역사와 논리가 통일된 사회로 사학이론서의 표준이 되었다. 왕작이 혁신적인 사학이론을 견지하게 된 것은 남송대 시대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靖康之變’으로 인해 고토를 회복하자는 憂國衷情과 함께 悲憤慷慨함이 사회전반에 만연하였고 망국의 비통함을 詞를 통해서 토로하였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碧鷄漫志》는 탄생되었다. 원저자는 남송초기 사론가 王灼(1081~1160)이다. 그는 字가 晦叔이고 號는 頤堂이며 遂寧(현재 四川 遂寧) 사람으로, 元豐 3年(1081)에 태어나 南宋 高宗 紹興 30年(1160) 80여 살까지 살았다. 그의 주요 저술로는 《頤堂先生文集》 5권, 《頤堂詞》 1권, 《糖霜譜》 1권, 佚文 12편, 《碧鷄漫志》 5권 등이 있다. 王灼의 《碧鷄漫志》는 중국 최초의 전문적인 사학이론서이다.

그 체재를 살펴보면, 제1권에는 唐宋이전의 詞文學의 역사가 총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2권에 北宋이후 詞人들의 風格과 流派가 서술되어 있다. 제3권부터 제5권까지는 주요 詞調 및 詞學의 역사적 淵源과 逸話 등을 논술하고 있다. 唐五代와 北宋代에 전문적인 詞論이나 詞評이 있긴 하였으나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사학비평에 있어서 확실한 이론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 책은 당시에 비교적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詞話學을 제시하여 다른 단편적인 사학이론을 제시한 이들과 비교해볼 때 진보적이고 완정한 것이다. 왕작은 사의 내용을 중시했고, 雅詞 창작을 추승했으며, 완약과 호방이라는 유파 풍격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리하여 詞人들의 풍격에 의해 유파별로 정리했다.

이 책 번역을 통한 학문적 기여도 혹은 활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벽계만지》는 체계적이고 분명한 이론 색채가 있는 여러 권으로 된 사회 전문서적이다. 물론 이 책 이전에 나온 《本事詞》, 《古今詞話》 등은

모두 자유적인 성격을 지닌 것인 반면, 노래를 하나의 학문으로 삼아 진지하고 엄숙하게 연구 고찰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둘째, 노래의 원류를 논하고 있다. 권1의 내용으로 三代부터 當代까지의 역대 노래의 원류와 변천을 고찰하고 탐구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률에 맞추어 전사하였는데, 이는 먼저 성률이 있고나서 후에 詩歌가 있는 것인데, 확실히 뒤바뀌었다. 또한 儒家詩教를 기준으로 하여 아악(雅樂)과 정성(鄭聲)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고시를 기준으로 사를 논하는 것의 효시가 되었다. 셋째, 당오대 이래의 많은 사인에 대하여 비교적 균일하게 객관적으로 품평하였다. 권2에서 당오대 이래의 60여명의 중요 사인들을 품평하였는데, 그 사인들에 대해서 균일하게 평정함이 있고, 그 논술한 것이 정확하고 적절하지만 공평 타당함을 잃은 곳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사 체제가 생겨난 이래로, 최초로 전대 사인과 사작품에 대해 총체적으로 품평한 평론이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사조와 그 근원을 고찰하여 설명하였다. 권3부터 권5까지의 내용으로, 《霓裳羽衣曲》 등 곡조의 원류와 변천을 전문적으로 고찰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30여 사조에 대해 그 근원을 고찰하여 설명하였는데, 사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가치를 지닌다. 중국 송대 사라는 음악문학이 당시 한국의 고려시대 문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고, 수용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왕작은 소식의 호방한 사풍에 대하여 비교적 일찍 높게 평가하였다. 당시 사단에서는 보편적으로 ‘婉媚’하고 ‘婉約’한 사풍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왕작은 이러한 사학 전통관념과 달리 ‘婉約’한 사풍을 경시하고, ‘豪放’ 사풍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왕작은 혁신적인 사학론을 주창하여 후대 사단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왕작은 중국사화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학이론과 관련된 관점이나 논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를테면 사의 기원에 대한 문제, 雅(아악)과 鄭(정성)의 구분을 음악의 관점에서 논한 점, 詞壇의 流派 문제를 제기한 점

을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책 번역을 통해서 왕작의 사학이론을 소개하여 관련분야 국내 연구자들에게 기초 학술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중국사문학 연구자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학문분야들, 이를테면 한문학, 국어국문학, 한국 음악학, 중국음악학, 중국고전시가, 한중비교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문헌자료를 제공하여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고전시가 분야 중에서 詩話는 비교적 많은 번역 성과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사화 관련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연구 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며 적었으며, 연구지원도 거의 없었다. 이 번역을 계기로 그동안 학계에서 소외되었던 사문학 연구를 수면으로 끌어올려, 중국사화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중국사문학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2000년에 중국학자 岳珍이 14가지 판본을 정밀하게 고증하여 표점 교감하여 《碧鷄漫志校正》을 巴蜀書社에서 출간했다. 역주자는 岳珍의 《碧鷄漫志校正》(成都: 巴蜀書社, 2000年)을 저본으로 삼고, 대만학자 徐信義의 《碧鷄漫志校箋》(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年)을 참고하여 역주하였음을 밝힌다. 향후 《碧鷄漫志》 계속 이어서 역주할 계획이다.

II. 《碧鷄漫志》역주[서문~1.9조까지]

(원문)碧雞漫志序

乙丑冬, 予客寄成都之碧雞坊妙勝院, 自夏涉秋, 與王和先、張齊望所居甚近, 皆有聲妓, 日置酒相樂, 予亦往來兩家不厭也。嘗作詩云: 「王家二瓊芙蓉妖, 張家阿倩海棠魄。露香亭前占秋光, 紅雲島邊弄春色。滿城錢癡買娉婷, 風捲畫樓絲竹聲。誰似兩家喜看客, 新翻歌舞勸飛觥。君不見東州鈍漢髮半縞, 日日醉踏碧雞三井道。」予每飲歸, 不敢徑臥, 客舍無與語, 因旁

緣是日歌曲，出所聞見，仍考歷世習俗，追思平時論說，信筆以記。積百十紙，混羣書中，不自收拾。今秋開篋偶得之，殘脫逸散，僅存十七，因次比增廣成五卷，目曰《碧雞漫志》。顧將老矣，方悔少年之非，游心淡泊，成此亦安用？但一時醉墨，未忍焚棄耳。己巳三月既望，覃思齋序。

(역) 《벽계만지》 서문

을축년 겨울, 내가 성도(成都)의 벽계방(碧鷄坊) 묘승원(妙勝院)에 기숙(寄宿)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냈다. 왕화선(王和先)과 장제망(張齊望)이 살고 있는 곳과 매우 가까웠는데 모두 노래를 잘 하는 기녀가 있었다. 매일 술자리를 마련하여 즐기곤 하였는데 나 역시 두 집을 왕래하기가 싫지 않았다. 한번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보았다.

왕씨 집안의 십이경루(十二瓊樓: 선경(仙境)에 있다는 구슬로 장식한 열두 개의 누대)에 핀 연꽃은 매혹적이고 장씨 집안의 아가씨는 해당화의 흰백이로다. 노향정(露香亭) 앞은 가을 경치를 독점하고 홍운도(紅雲島) 변 두리는 봄기운을 희롱하네. 성안 가득한 돈을 주고 미인을 사들이고 바람이 화루를 말아 올리니 악기 소리 들리네. 누가 두 집안처럼 손님 대접을 기뻐하라, 필력은 춤사위에 술잔을 기울이기를 권하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동쪽에서 온 아둔한 놈은 머리가 반백인데 날마다 술 취해 벽계의 삼정도를 밟고 다니는 줄?

내가 매번 술 마시고 돌아가면 감히 바로 잠들지 못하는데, 객사에는 함께 말할 사람도 없어서 이를 핑계대고 이날의 가곡을 보고 들은 이날의 가곡을 꺼내어 보고 그대로 역대의 습속을 상고해보고 평상시의 논설을 더듬어 곱씹어보아 붓 가는 대로 기록하였는데 누적된 양이 종이 110장이었지만, 여러 서책 안에 섞어놓고는 스스로 수습하지 않았다.

올 가을에 책상자를 열다가 우연히 이 종이를 찾아냈는데, 망가지고 흩어져서 겨우 전체의 7할 정도만 남아있었다. 차례에 인하여 보충하여 5권으로 만들고 제목을 벽계만지라고 하였다. 돌아보면 장차 늙어감에 소릿적

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데 마음을 노니는 것이 담박하니 이것을 완성해 놓은들 또한 무슨 소용이겠는가. 단지 한 때 취해서 끄적거린 것을 차마 불살라버릴 수 없었을 뿐이다. 기사년 3월 16일에 담사재(覃思齋)는 서문을 쓰노라.

(1.1 원문) 歌曲所起

或問歌曲所起。曰：天地始分，而人生焉，人莫不有心，此歌曲所以起也。《舜典》¹⁾曰：「詩言志，歌永言，聲依永，律和聲。」《詩》序²⁾曰：「在心為志，發言為詩，情動于中而形于言。言之不足，故嗟嘆之，嗟嘆之不足，故永歌之，永歌之不足，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樂記》³⁾曰：「詩言其志，歌咏其聲，舞動其容，三者本于心，然後樂器從之。」故有心則有詩，有詩則有歌，有歌則有聲律，有聲律則有樂歌，永言即詩也，非于詩外求歌也。今先定音節，乃製詞從之，倒置甚矣。而士大夫又分詩與樂府作兩科。古詩或名曰樂府，謂詩之可歌也。故樂府中有歌、有謠、有吟、有引、有行、有曲。今人于古樂府，特指為詩之流，而以詞就音，始名樂府，非古也。舜命夔教胄子，詩歌聲律，率有次第。又語禹曰：「予欲聞六律⁴⁾、五

- 1) 舜典：《서경》〈순진(舜典)〉의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고, 소리는 길이에 의지한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 2) 詩序：《시경(詩經)》의 〈序〉에 “시는 뜻이 가는 것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하면 시가 된다. 정이 마음속에서 발동하여 말로 나타내는데,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탄하고, 감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래를 읊조리고, 노래를 읊조리는 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구르게 된다.(詩者，志之所之也，在心為志，發言為詩，情動於中而形於言，言之不足，故嗟嘆之，嗟嘆之不足，故詠歌之，詠歌之不足，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라고 되어 있다.
- 3) 樂記：《예기(禮記)》〈악기(樂記)〉편에 “시는 그 뜻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는 소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고, 무용은 동작으로 형용하는 것이다.(詩言其志也 歌咏其聲也 舞動其容也)”라는 말이 나오고, 《장자(莊子)》〈천하(天下)〉편에 “시경의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서경의 글은 일을 말한 것이다.(詩以道志，書以道事)”라는 말이 나온다.
- 4) 六律：《고문상서(古文尚書)》익직(益稷)의 “나는 육률(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칠시영(七始詠)을 들어서 오언(五言)을 출납하고자 한다.(予欲聞六律五

聲、八音，在治忽，以出納五言。」其君臣《賡歌》、《九功》、《南風》、《卿雲》之歌，必聲律隨具。古者采詩，命太師爲樂章，祭祀、宴射、鄉飲皆用之。故曰：正得失，動天地，感鬼神，莫近于詩。先王以是經夫婦，成孝敬，厚人倫，美教化，移風俗。詩至于動天地，感鬼神，移風俗，何也？正謂播諸樂歌，有此效耳。然中世亦有因箏弦金石造歌以被之，若漢文帝使慎夫人鼓瑟，自倚瑟而歌，漢魏作三調歌辭，終非古法。

(1.1) 歌曲의 기원

어떤 사람이 歌曲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서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지고서 사람이 생겨났는데, 감정이 있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가곡이 시작된 이유이다. 《舜典》에서 말하기를, “詩는 뜻이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빼서 하는 것이며, 소리는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것이고 音律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詩經》서문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뜻이 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 감정이 마음 속에서 발동하여 말로 드러낸다. 말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탄식해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빼서 노래하게 되고, 길게 빼서 노래해도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덩실거리고 발을 구르게 된다.”라고 하였다. 《樂記》에 이르기를, “시는 그 뜻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는 소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고, 무용은 동작으로 형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바탕이 된 연후에야 악기가 따라온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聲八音七始詠(以出納五言)”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재치홀(在治忽)이라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사기(史記)》에는 내시활(來始滑)로, 《한서(漢書)》에는 칠시영(七始詠)으로, 북본에는 채정홀(采政忽)로 되어 있습니다. 칠시영(七始詠): 일곱 가지의 시조를 읊은 것. 시조란 즉 하늘·땅·사람·봄·여름·가을·겨울의 시조라는 것이다. 《서경(書經)》에는 이 ‘칠시영’ 자리를 ‘재치홀(在治忽)’로 바꿔 쓰고 있다.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소호(少昊)·전욱(顓頊)·제곡(帝嚳)·요(堯)까지의 일곱 임금이 각자 당대에 하나씩 썼던 악가(樂歌)였음을 주장하고 있다.《類選》

마음이 있으면 시가 있게 되고 시가 있으면 노래가 있게 되며, 노래가 있으면 성률이 있게 되며 성률이 있으면 가락이 있게 된다. 말을 길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가 되니 시 밖에서 노래를 찾는 것은 잘못 되는 것이다. 지금 먼저 음과 리듬을 정하면 이내 가사를 지어서 붙이고 있는데 순서가 심하게 도치되었다. 그러나 사대부들 또한 시와 樂府로 두 과로 나누었다. 古詩를 혹은 악부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부 중에 歌, 謠, 吟, 引, 行, 曲이 있다. 지금 사람들이 옛 악부에 대해서 시의 흐름이라고 특정하여 지칭하는데, 가사가 음률에 맞추게 되어 비로소 악부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옛 것이 아니다.

순임금이 夔에게 명령하여 胄子를 가르치게 했는데 시와 노래, 소리와 음률에 모두 순서가 있었다. 또 우임금에게 말하길 “내가 六律·五聲·八音· 잘 다스려짐과 잘 다스려지지 않음을 살핀 것을 듣고서 五言을 出納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 임금과 신하의 〈廣歌〉, 〈九功〉, 〈南風〉, 〈卿雲〉의 노래는 반드시 성률이 따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옛날에 시를 채집할 때 太師(樂工)에게 명하여 樂章을 만들게 하여 祭·大射禮·鄉飲禮에 모두 악장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말해보건대, “언음과 잃음을 바르게 하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데 시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 선왕은 이 시로써 부부의 원칙으로 삼았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었으며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여 풍속을 변화시켰다. 시가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며, 풍속을 변화시키는데 이르러서는 어떻게 그리 되는가? 음악과 노래에 전파시킨 것에 이러한 효과가 있을 따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中世에 또한 관현악기와 타악기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음률에 입힌 것이라고 하였으니 마치 漢文帝가 愼夫人으로 하여금 거문고를 연주하게 하고 자신은 거문고 연주에 맞추어 노래한 것과 같다. 漢魏시대에 三調(慢, 中, 數의 곡조의 속도)의 가사가 지은 것은 끝내 옛날 법도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1.2원문) 歌詞之變

古人初不定聲律，因所感發為歌而聲律從之，唐、禪代⁵⁾以來是也，餘波至西漢末始絕。西漢時今之所謂古樂府者漸興，晉魏為盛，隋氏取漢以來樂器歌章古調併入清樂，餘波至李唐始絕。唐中葉雖有古樂府，而播在聲律則妙矣，士大夫作者，不過以詩一體自名耳。蓋隋以來今之所謂曲子者漸興，至唐稍盛，今則繁聲淫奏，殆不可數。古歌變為古樂府，古樂府變為今曲子，其本一也。後世風俗益不及古，故相懸耳。而世之士大夫亦多不知歌詞之變。

(1.2역) 가사의 변천

옛날 사람은 애초에 聲律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바를 발현하여 노래가 되었고, 성률이 노래를 따라갔던 것인데 堯舜과 三代 이래로 이러하였다. 여파가 西漢 말엽에 이르자 비로소 끊어졌다. 서한 시대에 지금의 이른바 古樂府라는 것이 점차 흥기되었고 魏晉 시대에 융성했다. 隋나라는 한나라 이래의 악기와 歌章, 古調를 취하여 清樂에 병합하여 넣었는데, 여파가 唐나라에 이르자 비로소 끊어졌다. 당나라 중엽에 비록 古樂府가 있었더라도 성률에 전파되는 것은 극히 적었다. 사대부들이 지은 것은 단지 시의 한 체제로써 스스로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아마도 수나라 이래로 지금에 이른바 曲子라는 것이 점점 흥기하였고, 당나라에 이르러 조금 융성하였다. 지금 화려한 성률과 음탕한 연주가 거의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옛날의 노래가 변해서 古樂府가 되었고, 고악부가 변해서 지금의 곡자가 되었는데, 그 근본은 하나인 것이다. 후세의 풍속이 더욱 옛날만 못하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시대부들 역시 대다수가 노래 가사의 변천을 알지 못한다.

5) 唐禪代: 唐은 堯임금이 세운 나라이며 보통 舜임금이 세운 虞와 唐虞로 병칭된다. 禪代는 禹, 湯王, 武王이 이전 왕조에서 禪位를 받아 나라를 세운 三代를 가리킨다.

(1.3원문)古者歌工樂皆非庸人

子語魯太師樂⁶⁾, 知樂深矣。魯太師者亦可語此耶? 古者歌工、樂工皆非庸人, 故摯適齊⁷⁾, 干適楚, 繚適蔡, 缺適秦, 方叔入河, 武入漢, 陽、襄入海, 孔子錄之。八人中, 其一又見于《家語》。孔子學琴于師襄子, 襄子曰「吾雖以擊磬為官, 然能于琴, 今子于琴已習」是也。子貢問師乙: 「賜宜何歌?」答曰: 「愛者宜歌商, 溫良而能斷者宜歌齊, 寬而靜、柔而正者宜歌頌, 廣大而靜、疏達而信者宜歌大雅, 恭儉而好禮者宜歌小雅, 正直而靜、廉而謙者宜歌風。」師乙, 賤工也, 學識乃至此。又曰: 「歌者上如抗, 下如墜, 曲如折, 止如槁木, 倨中矩, 勾中鉤, 纍纍乎端如貫珠。」歌之妙不越此矣。今有過鈞容班教坊者, 問曰: 「某宜何歌?」必曰: 「汝宜唱田中行、曹元寵小令。」

(1.3역) 옛날에 노래 만들었던 사람과 악공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공자께서魯나라 太師의 음악을 말씀하셨으니 공자는 음악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다. 노나라의 태사라는 사람 또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옛날에 노래를 부르던 사람과 악공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사 摯는 齊나라로 갔고 亞飯 干은 楚나라로 갔으며, 三飯 繚가 蔡나라로 떠나갔으며, 四飯 缺은 秦나라로 떠나갔다. 북을 치는 方叔은 河內로

6) 子語魯太師樂: 《論語》의〈八佾〉편에 나온다. 짐주에는 태사(太師)는 악관(樂官)의 명칭이다. 당시에 음악이 폐지되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7) 摯適齊: 《論語》의〈微子〉에 나온다. “태사(太師: 악관(樂官)의 우두머리) 지(摯)는 제(齊)나라로 가고 아반간(亞飯干)은 초(楚)나라로 가고, 삼반료(三飯繚)는 채(蔡)나라로 가고, 사반결(四飯缺)은 진(秦)나라로 가고, 북을 치는 방숙(方叔)은 하내(河內)로 들어가고, 소고(小鼓)를 흔드는 무(武)는 한중(漢中)으로 들어가고, 소사(少師: 악관의 보좌관) 양(陽)과 경쇠를 치는 양(襄)은 해도(海島)로 들어갔다.(大(太)師摯, 適齊: 亞飯干, 適楚: 三飯繚, 適秦: 四飯缺, 適秦: 鼓方叔, 入於河: 播鼓武, 入於漢: 少師陽, 擊磬襄, 入於海.)” 짐주에 주(周)나라가 쇠하여 음악이 폐해졌었는데, 부자께서 위(衛)나라로부터 노(魯)나라로 돌아오시어 한번 다스리시니, 그 후에 영인(伶人)과 천공(賤工)도 음악의 올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 태사(太師)로부터 이하 사람들이 모두 사망으로 흩어져 황하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피난할 줄을 알았다.

들어갔고 소고를 흔드는 武는 漢中으로 들어갔으며, 少師 陽과 경쇠 치는 襄이 海島로 들어갔으니(《論語·微子》) 공자는 이것을 기록했다. 여덟 사람 중에서 한 명은 또한 《孔子家語》에 보인다.

공자는 거문고를 스승인 襄子에게 배웠는데, 양자가 말하길 “내가 비록 편경을 치는 일로 관리가 되었지만, 거문고 연주하는 데에 능숙하다. 지금 그대가 거문고를 타는 것에 이미 능숙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子貢이 師乙에게 묻기를 “저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알맞겠습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자애로운 사람은 商을 노래하기에 알맞고 온화하면서도 제대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齊를 노래하기에 알맞으며, 너그러우면서도 조용하며 부드러운 사람도 바른 사람은 頌을 노래하기에 알맞고 그릇이 광대하면서 조용하고 소통하고 통달하면서 믿음직한 사람은 大雅를 노래하기 알맞으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小雅를 노래하기에 알맞고 정직하면서 조용하고 청렴하고 겸손한 사람은 風을 노래하기에 알맞다.”라고 하였다. 師乙은 비천한 악공인데 학식이 바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 또 말하기를, “노래라는 것이 올라갈 때는 들어 올리는 것과 같고, 내려갈 때는 떨어지는 것과 같다. 굽이치는 것이 꺾여 접히는 것 같고, 멈추는 것은 마른나무와 같다. 곧은 것은 곧자(矩)와 들어맞고, 구(鉤)는 원규(圓規)와 맞아떨어지니 얽히고 섞혀도 마치 췌 구슬 같이 정돈되었다.”라고 했다. 아무리 오묘한 노래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지금에 어떤 군악대가 教坊을 지나가면서 묻기를, “저희는 어떤 노래를 해야 알맞겠습니까?”하고 묻는다면, 반드시 “당신은 田中行, 曹元寵의 小俞을 불러야 알맞을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1.4원문)漢初古俗猶在

劉、項皆善作歌，西漢諸帝如武、宣類能之。趙王幽死⁸⁾，諸王負罪死，臨

8) 幽死: 趙王 劉友는 유방의 아들이자, 혜제의 이복동생이다. 여태후가 질투가 심하여 조왕을 불러 감금시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자 呂氏를 저주하는 노래를 짓고 아사하였다. 《사기(史記)·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

絶之音, 曲折深迫。廣川王通經, 好文辭, 為諸姬作歌尤奇古。而高祖之戚夫人、燕王旦之華容夫人兩歌, 又不在諸王下, 蓋漢初古俗猶在也。東京以來, 非無作者, 大概文采有餘, 情性不足。高歡玉壁⁹⁾之役, 士卒死者七萬人, 慚憤發疾, 歸使斛律金作《勅勒歌》。其辭略曰: 「山蒼蒼, 天茫茫, 風吹草低見牛羊。」歡自和之, 哀感流涕。金不知書, 能發揮自然之妙如此, 當時徐、庾¹⁰⁾輩不能也。吾謂西漢後, 獨《勅勒歌》暨韓退之《十琴操》近古。

(1.4.4) 한나라 초기의 옛 풍속은 그대로이다.

유방과 항우는 모두 노래를 잘 지었고 前漢의 武帝나 宣帝 등과 같은 많은 제왕들은 노래를 잘 지었다. 趙王이 幽閉된 채 아사하였고 여러 왕이 죄를 지어 죽었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곡절이 매우 절박했다. 廣川王(劉去)은 경서에 능통하였고 문사를 좋아했으며, 여러 희첩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더욱 기이하고 고풍스러웠다. 高祖의 戚夫人과 燕王 旦의 華容夫人이 지은 두 곡의 노래의 수준은 또 여러 왕 아래에 있지 않았으니 대개 한나라 초기에는 옛 풍속이 오히려 그대로 남아 있었다. 後漢 이래로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개 문체는 풍부한 데 반해 성정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했다. 高歡은 玉壁城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가 7만 명이 되어 수치와 분노로 발병하자 귀환하여 斛律金으로 하여금

9) 高歡玉壁: <칙록가(勅勒歌)>를 가리킨다. 중국 남북조 시대 황하 이북의 선비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민요이다. 북제(北齊)의 고환(高歡)이 옥벽성(玉壁城)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군사의 절반을 잃게 되자 곡률금(斛律金)에게 <칙록가>를 부르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였다고 한다.

10) 徐庾: 서릉(徐陵, 507~583)은 남조(南朝) 양(梁)·진(陳) 때의 사람으로, 자는 효목(孝穆)이다. 양나라 태자(太子) 소강(蕭綱)의 명으로 《옥대신영(玉臺新詠)》을 엮었다. 저서로는 《서효목집(徐孝穆集)》이 있다. 유신(庾信, 513~581)은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문신이자 문인으로 자는 자산(子山)이다. <애강남부(哀江南賦)>등을 지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정통하였으며, 학문에 해박하고 문장 또한 매우 아름다워 서릉(徐陵)과 함께 서유체(徐庾體)라고 칭해졌는데, 그의 변려문은 육조(六朝) 변려문의 집대성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勅勒歌〉를 짓게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산은 푸르디 푸르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 풀이 낮게 숙이면 사이로 소와 양이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고훈이 스스로 그 노래에 화답하고는 애상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 곡율금은 글을 몰랐지만, 이처럼 자연의 오묘함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徐陵이나 庾信과 같은 부류도 지을 수 없는 수준이다. 나는 西漢의 이후에는 오직 〈勅勒歌〉 및 韓愈의 〈十琴操〉 만이 고훈과 근사하다고 생각한다.

(1.5원문) 荆軻易水歌

荆軻入秦，燕太子丹及賓客送至易水之上，高漸離擊筑，軻和而歌，為變徵¹¹⁾之聲，士皆涕淚。又前為歌曰：「風蕭蕭兮易水寒，壯士一去兮不復還。」復為羽聲慷慨，士皆曠目，髮上指冠。軻本非聲律得名，乃能變徵換羽于立談間，而當時左右聽者，亦不憤憤也。今人苦心造成一新聲，便作幾許大知音矣。

(1.5역) 荆軻가 易水에서 노래하다.

荆軻가 秦나라에 들어가는데 燕太子 丹이 빈객들과 함께 易水 가에 가서 전송을 하였다. 高漸離가 筑을 연주하니 형가가 화답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변치(變徵)의 성률로 부르니 선비들 모두 눈물을 줄줄 흘렸다. 또 먼저 노래하기를, “바람 소리 우수수 불어오고 역수물이 차갑다네. 壯士가 한번 떠나가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다시 慷慨한 羽聲으로 노래하자 선비들은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모조리 일어서서 관을 찢었다. 형가는 본래 성률로써 명성을 얻은 사람이 아닌데, 이내 서서 대화 나누는 잠깐 사이에 徵徵을 羽音으로 변환시킬 수 있었으니 당시 좌우에 듣고 있던 사람들 역시 몽매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고

11) 變徵: 《통전(通典)》에 “상(商)나라 이전에는 오음(五音)인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만 있었는데 주(周)나라 때에 여기에 변궁(變宮), 변치(變徵) 2성(聲)이 추가되었으니, 이것을 2변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심해서 하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지만, 바로 몇 명이나 음률에 정통한 대가가 될 수 있을까?

(1.6원문)古音古辭亡缺

或問：元次山¹²⁾補伏羲至商十代樂歌，皮襲美¹³⁾補九夏歌，是否？曰：名與義存，二子補之無害。或有其名而無其義，有其義而名不可強訓，吾未保二子之全得也。次山曰：「嗚呼！樂聲自太古始，百世之後，盡亡古音；樂歌自太古始，百世之後，遂亡古辭。」次山知之晚也。孔子之時，三皇五帝樂歌已不及見，在齊聞《韶》¹⁴⁾，至三月不知肉味。戰國秦火，古器與音辭亡缺無遺。

(1.6역) 옛 음악과 옛 가사의 망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元次山の 伏羲氏로부터 殷(商)나라에 이르는 10대 <補樂歌>와 皮襲美의 <補九夏歌>는 그러합니까?”라고 해서, 대답하기를, “이름과 의미가 남아 있다면 두 사람이 보충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것은 이름은 있지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미는 있지만 이름은 억지로 풀이할 수 없다. 나는 이 두 사람이 온전히 얻었을 것이라 보장하지는 못한다. 차산이 말하기를, ‘아이! 樂聲은 태고부터 시작되었으나 백세가 지난 후에는 옛 음악이 모두 없어졌고, 樂歌는 태고부터 시작되었으나

12) 元次山: 元結(719~772)의 호. 中國唐代文學家이며, 字는 次山이고, 號는 漫叟, 聾叟이다. 河南 魯山 사람이다. 韓愈(韓愈) 이전에 古文(古文)을 부흥한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13) 皮襲美: 피일휴(皮日休, 833~883)의 호. 당(唐)나라 양양(襄陽) 사람으로 자는 습미(襲美) 또는 일소(逸少), 호는 취음선생(醉吟先生)·녹문은사(鹿門隱士)·간기포의(間氣布衣). 만당(晩唐)의 시인으로 육구몽과 함께 피육(皮陸) 2대 시인이라고 불렸다. 문장에 능하고, 벼슬은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이르렀다. 저서에 《피자문수(皮子文藪)》·《녹문은서(鹿門隱書)》 60편이 있다.

14) 在齊聞韶: 공자(孔子)가 제(齊)나라에서 소악(韶樂)을 배웠는데, 소악이 하도 좋아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는 데에서 인용된 것이다. 《論語·述而》

백세가 지난 후에는 옛 가사가 마침내 없어졌다.'라고 하였으니 차산이 늦게서야 안 것이다. 공자의 시대에 삼황오제의 樂歌는 이미 찾아볼 수 없었고 공자가 제나라에서 <韶>를 듣고는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전국시대 秦나라의 통일전쟁으로 옛 악기와 가락과 가사는 망실되어 남겨진 것이 없다.

(1.7원문)自漢至唐所存之曲

漢時雅鄭參用，而鄭為多。魏平荊州，獲漢雅樂，古曲音辭存者四，曰：《鹿鳴》、《騶虞》、《伐檀》、《文王》。而左延年之徒以新聲被寵，復改易音辭，止存《鹿鳴》一曲，晉初亦除之。又漢代短篇鑿歌樂¹⁵⁾ 曲，三國時存者，有《朱鷺》、《艾如張》、《上之回》、《戰城南》、《巫山高》、《將進酒》之類，凡二十二曲。魏、吳稱號，始各改其十二曲。晉興，又盡改之，獨《玄雲》、《鈞竿》二曲名存而已。漢代鞀舞，三國時存者，有《殿前生桂樹》等五曲，其辭則亡。漢代胡角《摩訶兜勒》一曲，張騫得自西域，李延年因之更造新聲二十八解，魏晉時亦亡。晉以來新曲頗眾，隋初盡歸清樂¹⁶⁾。至唐武后時，舊曲存者，如《白雪》、《公莫》、《巴渝》、《白紵》、《子夜》、《團扇》、《懊惱》、《石城》、《莫愁》、《楊叛》、《烏夜啼》、《玉樹後庭花》等，止六十三曲。唐中葉，聲辭存者，又止三十七，有聲無辭者七，今不復見。唐歌曲比前世益多，聲行于今，辭見于今者，皆十之三四，世代差近爾。大抵先世樂府，有其名者尚多，其義存者十之三，其始辭存者十不得一，若其音則無傳，勢使然也。

- 15) 短篇鑿歌樂: 동한(東漢)의 명제(明帝)는 악(樂)을 사품(四品)으로 나누었다. 첫 째는 대여악(大予樂)으로 교(郊) 제사나 묘(廟) 제사 및 능행(陵行)할 때 사용하고, 둘째는 아송악(雅頌樂)으로 벽옹(辟雍)의 향사(饗射)에 사용하고, 셋째는 황문고취악(黃門鼓吹樂)으로 천자가 군신(群臣)에게 잔치를 베풀 때 사용하고, 넷째는 단소요가악(短篇鑿歌樂)으로 군중(軍中)에서 사용한다.
- 16) 清樂: 청악은 남조의 구악(舊樂)인 <청상악(清商樂)>을 말한다. 후위 효문제(後魏孝文帝)가 회(淮)와 한(漢)을 정벌하고 얻은 남음(南音)을 수집하여 <청상악>이라고 하였고, 수나라의 평진(平陳)이 청상서(清商署)를 설치하고 총괄 하여 <청악>이라고 하였다. 《舊唐書》卷29, <清樂>

(1.7) 漢나라에서 당나라까지 남아있는 악곡

한나라 때는 雅樂과 鄭樂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鄭樂이 많았다. 魏나라가 荊州를 평정하자 한나라 아악을 획득하였는데, 옛날 악곡의 가락과 가사는 모두 4가지로 〈鹿鳴〉, 〈騶虞〉, 〈伐檀〉, 〈文王〉이었다. 그러나 左延年의 무리가 새로운 성물로 사랑을 받자 다시 음악의 가사를 바꾸는 바람에 〈鹿鳴〉 한 곡만이 남아 있는데 그쳤고 晉나라 초기에 또한 그것마저 삭제하였다. 또 한나라의 短簫鏡歌樂(軍樂)의 악곡이 삼국시대에 남아있는데 〈朱鷺〉, 〈艾如張〉, 〈上之回〉, 〈戰城南〉, 〈巫山高〉, 〈將進酒〉의 부류로 모두 22곡이다. 魏나라와 蜀나라에서 부르는 칭호는 각각 12곡씩 바뀌었다가 晉나라가 흥성하자 또 그것이 모두 바뀌었고 오로지 〈玄雲〉, 〈釣竿〉 두 곡이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다. 한나라의 鞞舞(비무 잔치에서 쓰던 춤)는 삼국시대에 남아있는데 〈殿前生桂樹〉 등의 다섯 곡으로 그 가사는 없어졌다. 한나라의 胡角(서역의 관악기)으로 연주하는 〈摩訶兜勒曲〉은 張騫이 西城에서 가져온 것으로, 李延年在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물 28解를 다시 만들어 내었는데 魏晉시대에 또한 없어졌다. 晉나라 이후로 새로운 악곡이 제법 많았는데 隋나라 초기에 모두 淸樂으로 귀속되었다.

唐나라 武后 때에 이르러서는 옛 악곡 중에 남아있는 것은 예를 들면 〈白雪〉, 〈公莫〉, 〈巴渝〉, 〈白紵〉, 〈子夜〉, 〈團扇〉, 〈懊憹〉, 〈石城〉, 〈莫愁〉, 〈楊叛〉, 〈烏夜啼〉, 〈玉樹後庭花〉 등 63곡 뿐이다. 당나라 중엽에는 성물과 가사가 남아있는 것은 또 37곡에 그치고, 성물은 있으나 가사가 없는 것이 7곡이며, 지금은 다시 보이지 않는다. 당나라의 가곡은 전 왕조에 비해서 더욱 많은데 성물이 지금까지 유행하고 가사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모두 열에 서너 개 정도이니 세대의 차이가 가깝기 때문일 뿐이다. 대체적으로 이전 시대의 악부는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많은 반면 그 의미가 남아있는 것은 열에 세 개 정도이며, 애당초 가사가 존재하는 것이 열에 한 개도 되지 않는다. 그 음악 같은 것은 전해지는 것이 없었으니 형세상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1.8원문)晉以來歌曲

石崇¹⁷)以《明君曲》¹⁸)教其妾綠珠¹⁹), 曰:「我本漢家子, 將適單于²⁰)庭。昔為匣中玉, 今為糞土英。」綠珠亦自作《懊惱歌》²¹)曰:「絲布澀難縫。」桓伊侍孝武飲讌, 撫弦而歌《怨詩》曰:「為君既不易, 為臣良獨難。忠信事不顯, 乃有見疑患。周旦佐文武, 金縢²²)功不刊。推心輔王政, 二叔²³)反流

17) 석송: 石崇(249~300)의 字는 季倫이며, 아명은 齊奴이다. 渤海 南皮(지금의 河北省 南皮) 사람으로 石苞의 아들이다. 문학적 재질이 있었으며 散騎常侍, 侍中으로 옮기고 南中郎將 荊州刺史로 나갔다. 임기에 있을 때 상인을 겁탈하여 치부하였으며 賈后가 전권을 휘둘 때 賈謐에게 아첨하여 “24명의 벗”의 하나가 되었다. 재물이 쌓였고 집이 웅장하였으며 사치를 숭상하여 일찍이 왕의 인척인 王愷, 羊琇와 부를 다투었다. 뒤에 謐의 무리로 관직에서 파면되었으며, 孫秀가 전권을 지녔을 때 자기 집 기생인 綠珠를 사모하여 구하였는데 주지 않았다가 드디어 죽임을 당하였다. 《晉書》33卷, 《列傳》第3, 石崇條.

18) 明君曲: 석송이 지은 <왕소군사(王昭君辭)>를 말한다.

19) 綠珠: 석송에게는 綠珠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피리를 잘 불었다. 孫秀가 사람을 시켜 구하려 하였는데 이때 석송은 금곡 별장에 있었다. 마침 涼臺에 올라 맑은 물을 감상하고 있었으며 부인이 모시고 있었다. 사자가 이 내용을 알리자 자신의 婢妾 10인을 보였는데 모두 盛裝을 하고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가려라”하니 사자가 “군후의 비첩들은 아름답다면 아름답지만 본래 녹주를 지명하여 찾아오라 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석송이 발끈하여 말하기를 “녹주는 내가 사랑하는 첩이니 줄 수 없다.” 하였다. 사자가 “군후는 고금을 두루 아시니 앞뒤를 제어 숙고해 주십시오.” 석송이 말하기를 “그러지 않겠다.” 사자가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석송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손수가 화가 나서 趙王 倫을 부추겨서 석송과 그의 생질인 歐陽建을 죽이게 하였다. 석송과 구양건도 그 계략을 알고 黃門郎 潘岳과 함께 淮南王 允과 齊王 冏을 부추겨서 조왕 룬과 손수를 헤치려 하였다. 손수가 이를 알고 드디어 君命을 칭탁하여 석송과 반악, 구양건 등을 오게 하니 석송이 마침 누각에서 잔치를 하는 중에 介士가 문에 이르렀다. 석송이 녹주에게 이 르기를 “내가 이제 너 때문에 죄를 입게 되었다.” 하니 녹주가 울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누각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20) 單于: 한나라의 북쪽에 있는 흉노족(匈奴族) 같은 유목민의 왕을 선우(單于)라고 불렀다. 몽고지역은 칸(汗)이라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

21) 懊惱歌: 西晉시대의 名妓 綠珠가 지은 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絲布澀難縫 令儂十指穿 黃牛細犢車 遊戲出孟津.”

22) 金縢: 금둥이란 《서경(書經)》의 편명으로 주(周) 나라 무왕이 병이 나자 주공(周公)이 왕실(王室)이 편안치 못하고 은민(殷民)이 굴복하지 아니하여 근본

言。」熊甫見王敦委任錢鳳，將有異圖，進說不納，因告歸。臨與敦別，歌曰：「徂風飄起蓋山陵，氛霧蔽日玉石焚。往事既去可長嘆，念別惆悵會復難。」陳安死，隴上²⁴⁾歌之曰：「隴上壯士有陳安，軀幹雖小腹中寬，愛養將士同心肝。驕驄父馬鐵鍛鞍，七尺大刀奮如湍，丈八蛇矛左右盤，十蕩十決無當前。戰始三交失蛇矛，棄我驕驄竄巖幽，為我外援而懸頭。西流之水東流河，一去不還奈子何。」劉曜聞而悲傷，命樂府歌之。晉以來歌曲見于史者，蓋如是耳。

(1.8역) 썸나라 이후의 가곡

石崇이 〈明君曲〉을 그 첩 綠珠에게 가르치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한 나라의 처자인데 흉노 추장의 집으로 시집가려 하오. 옛날에는 상자 속의 보옥이었으나 지금은 거름 속의 꽃이 되었소.”라고 했다. 綠珠가 또한 스스로 〈懊惱歌〉를 지어 말하기를, “무명 천은 매끄럽지 못해 꿰메기가 어렵네.”라고 하였다. 桓伊가 孝武帝를 모시고 연회를 열어 현악기를 연주하며 〈怨詩〉를 노래하기를, “제왕이 되는 것이 이미 쉽지 않았고 신하 노릇 하는 것도 진실로 매우 어려웠네. 충심과 신실한 일은 드러나지 않고 이내 의심과 우환만 보이네. 周公 ㅁ이 文王과 武王을 보좌하니 金縢의 공은 없어지지 않았네. 진심을 미루어 왕도 정치를 보좌했지만 二叔은 오히려 주공이 역심을 품었다고 헛소문을 퍼트렸네.”라고 했다. 熊甫는 王敦이 錢鳳을 신임한 것은 보고 장차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겨 간언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고하고 귀항하게 되었는데 王敦과 작별

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으로써 세 왕(태왕·왕계·문왕)에게 무왕의 명을 자기가 대신 받아 죽게 하고 무왕은 살려 달라고 축원한 것을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금궤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말하는데, 나라의 충성을 나타낸다.

23) 二叔: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으로, 이들은 주공(周公)의 형제이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성왕(成王)이 어리므로 그의 숙부인 주공이 섭정할 때 관숙과 채숙이 유언(流言)을 퍼뜨려 주공을 모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 《書經·金縢》

24) 隴上: 甘肅의 間稱이 隴.

할 때가 되어 노래하기를, “비로소 폭풍 일어나 산릉을 뒤덮고, 안개가 해를 가리니 옥과 돌은 함께 불타네. 지난 일 흘러가 긴 탄식 나오는데, 서글픈 이별 생각하니 다시 만나기 어려우리.”라고 했다.

陳安이 죽을 적에 隴上에서 노래하기를, “隴上の 장사 진안이 있는데 체구는 비록 작으나 배짱은 두둑하여 장병을 사랑으로 양성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지. 천리마에 쇠로 단련한 안장 없고, 칠 척 큰 칼이 소용돌이처럼 몰아치며 장팔사모 좌우로 휘두르네. 열이면 열 쓸어 없애버리니 앞에 아무것도 없다. 전쟁이 시작되자 세 차례 교전 끝에 장팔사모 잃고 내 천리마 버리고 어두운 바위로 달아나는데, 우리를 위해 밖에서 원조를 보내오기를 학수고대하네. 서쪽으로 흐르는 물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 되니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대는 어이할까.”라고 했다. 劉耀가 듣고 슬퍼하며 악부에 명하여 노래하게 하였다. 썩나라 이래로 역사에서 보이는 歌曲은 대개 이와 같을 뿐이다.

(1.9원문) 唐絕句定為歌曲

唐時古意亦未全喪, 《竹枝》、《浪淘沙》、《拋毬樂》、《楊柳枝》, 乃詩中絕句, 而定為歌曲。故李太白《清平調詞》²⁵⁾三章皆絕句。元、白²⁶⁾諸詩, 亦為知音者協律作歌。白樂天守杭, 元微之贈云: 「休遣玲瓏唱我詩, 我詩多是別君辭。」自注云: 「樂人高玲瓏能歌, 歌子數十詩。」樂天亦《醉戲諸妓》云: 「席上爭飛使君²⁷⁾酒, 歌中多唱舍人詩。」又《聞歌妓唱前郡守嚴郎中

25) 清平調詞: 당 현종(唐玄宗)이 침향정(沈香亭)에서 양 귀비(楊貴妃)와 모란꽃을 구경하다가 한림(翰林) 이백을 불러 시를 짓게 하자 3수를 지어 바쳤는데, 그 중에 “유명한 꽃과 경국지색 모두 기쁨을 선사해서, 군왕이 언제나 미소 띠고 바라본다네. 봄바람의 끝없는 환을 풀어 녹이려고, 침향정 북쪽 난간에 기대셨다오.[名花傾國兩相歡 長得君王帶笑看 解釋春風無限恨 沈香亭北倚闌干]”라는 말이 나온다. 《李太白集》卷4 〈清平調詞〉

26) 元白: 원미지(元微之, 元稹)와 백락천(白樂天, 白居易)인데, 두 사람의 교분이 두터워서 詩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 매우 많다.

27) 使君·舍人: 사군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 수령의 존칭이다. 한대의 刺史나 당대이후 州·郡의 長官에 쓰였으며 여기서는 항주태수인

詩》云：「已留舊政布中和，又付新詩與艷歌。」元微之《見人詠韓舍人新律詩戲贈》云：「輕新便妓唱，凝妙入僧禪。」沈亞之²⁸⁾送人序云：「故友李賀，善撰南北朝樂府故詞，其所賦尤多怨鬱悽艷之巧。誠以蓋古排今，使為詞者莫得偶矣。惜乎其終亦不備聲弦唱。」然唐史稱：李賀樂府數十篇，雲韶²⁹⁾諸工皆合之弦筚。又稱：李益詩名與賀相埒，每一篇成，樂工爭以賂求取之，被聲歌供奉天子。又稱：元微之詩，往往播樂府。舊史亦稱：武元衡³⁰⁾工五言詩，好事者傳之，往往被于筚弦。又舊說：開元中，詩人王昌齡、高適、王之渙詣旗亭飲。梨園³¹⁾伶官亦招妓聚燕，三人私約曰：「我輩擅詩名，未定甲乙，試觀諸伶謳詩分優劣。」一伶唱昌齡二絕句云：「寒雨³²⁾連汪夜入吳。平明送客楚帆孤。洛陽親友如相問，一片冰心在玉壺。」奉帚³³⁾平明金殿開，強將團扇共徘徊。玉顏不及寒鴉色，猶帶昭陽³⁴⁾日影來。」一伶唱適絕句云：「開

원진을 가리킨다. 솨人是 당대의 관직명으로 백거이가 中書舍人에 제수된 바 있다.

- 28) 沈亞之: 심아지(781~832?)는 자가 하현(下賢)으로 저장성(浙江省) 우싱(吳興) 출신이며 일찍이 이상은 두목 이하 등과 마찬가지로 한유 문학에 들었다. 시보다 오히려 이몽록(異夢錄), 상중원사(湘中怨辭), 진몽기(秦夢記), 풍연전(馮燕傳) 등의 전기소설 작가로서 더 알려졌다. 《沈下賢集》 12권이 전한다.
- 29) 雲韶: 황제(黃帝) 때의 음악인 <운문(雲門)>과 순(舜) 임금 때의 음악인 <대소(大韶)>를 합해서 이르는 말이다.
- 30) 武元衡: 무원형(758~815). 당(唐)나라 하남(河南) 구씨(緱氏, 지금의 河南 偃師縣 남쪽) 사람. 시인(詩人). 자는 백창(伯蒼)이다. 증조 무재덕(武載德)은 무측친의 족제(族弟)였다. 헌종(憲宗) 원화(元和) 2년(807)에는 문하사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고, 이어서 검남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로 나갔다. 8년(813)에는 소환되어 다시 재상이 되었으며, 번진(蕃鎭)을 평정하고 통일을 강화할 것을 힘써 주장했다. 저작으로 <임회집(臨淮集)> 10권이 있었지만 산일(散逸)되었다. <전당시(全唐詩)>에는 그의 시 2권이 편집되어 있으며, <전당문(全唐文)>에는 그의 문장 10편이 보존되어 있다.
- 31) 梨園: 당나라 현종(玄宗) 때 궁정의 가무(歌舞) 예인(藝人)들을 교련하던 곳이다. 《新唐書》 卷22 《禮樂志》
- 32) 寒雨: 왕창령의 <芙蓉樓送辛漸>
- 33) 奉帚: 왕창령의 <長信秋詞>
- 34) 昭陽宮: 한 성제(漢成帝)가 조비연(趙飛燕)을 총애하여 여동생 조합덕(趙合德)을 소의(昭儀)에 봉하고 소양전에 살게 하였다. 이에 앞서 후궁 반첩여(班婕妤

篋³⁵)淚沾臆, 見君前日書。夜臺何寂寞, 猶是子雲居。」之渙曰: 「佳妓所唱, 如非我詩, 終身不敢與子爭衡。不然, 子等列拜牀下。」須臾, 妓唱: 「黃沙³⁶遠上白雲間, 一片孤城萬仞山。羌笛何須怨楊柳, 春風不度玉門關³⁷。」之渙挪揄二子曰: 「田舍奴, 我豈妄哉!」以此知李唐伶伎取當時名士詩句入歌曲, 蓋常俗也。蜀王衍召嘉王宗壽飲宣華苑, 命宮人李玉簫歌衍所撰宮詞云: 「輝輝赫赫浮五雲, 宣華池上月華春。月華如水映宮殿, 有酒不醉真癡人。」五代猶有此風, 今亡矣。近世有取陶淵明《歸去來》、李太白《把酒問月》、李長吉《將進酒》、大蘇公赤壁前後賦協入聲律, 此暗合其美耳。

(1.9역) 당의 絶句를 歌曲으로 정하다.

唐나라 때에 고풍스러운 詩意는 전부 사라지지 않았으니 〈竹枝〉, 〈浪淘沙〉, 〈拋毬樂〉, 〈楊柳枝〉가 바로 시 중에서 절구인데 가곡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李太白的 〈淸平調詞〉 三章은 모두 絶句이다. 元稹(元微之)과 白居易(白樂天)의 여러 시들 역시 친한 벗을 위하여 음률에 맞추어 노래를 지은 것이다. 백낙천이 杭州의 수령이 되었을 때 원미지가 백낙천에게 시를 주어 보내기를, “玲瓏으로 하여금 나의 시를 노래 부르게 하지 마오. 나의 시 대부분이 그대와 이별한 가사이니.”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주석을 달기를, “樂人 高玲瓏은 노래를 잘 불렀는데 나의 시 수십 수를 노래했다.”라고 하였다. 백낙천 또한 〈醉戲諸妓〉에서 말하기를, “술자리에서 다투어 使君(원진)에게 술 권하였는데, 노래 중에는 畝人(백거이)의 시를 많이 부르더라.”라고 하였다. 또한 〈聞歌妓唱前郡守嚴郎中詩〉에서 말하기를, “中和의 덕을 베푼 옛 정사는 이미 변치 않았는데 또 새로운 시와 艷歌에

好)는 임금의 총애를 잃어 장신전(長信殿)에서 태후(太后)를 시봉(侍奉)하며 자신의 처지를 가탁한 〈원가행(怨歌行)〉을 지었다. 왕창령(王昌齡)의 〈장신추사(長信秋詞)〉에 “옥 같은 얼굴이 까마귀보다 못하니, 까마귀는 그래도 소양궁 해 그림자 받고 오거늘(玉顏不及寒鴉色, 猶帶昭陽日影來)”라고 하였다.

35) 開篋: 고적의 〈哭單父梁九少府〉

36) 黃沙: 왕지환의 〈涼州詞〉

37) 玉門關: 중국 감숙성(甘肅省) 둔황(敦煌) 서북쪽에 있는 국경 요새.

부쳤더라.”라고 했다. 원미지의 〈見人詠韓舍人新律詩戲贈〉에서는 말하기를 “경쾌하고 새롭으니 곧 기녀의 노래요 오묘함이 응축되니 參禪에 들어간 듯하네.”라고 했다.

沈亞之가 사람을 송별하는 서문에서 말하기를, “오랜 친구 李賀가 남북 조시대의 樂府 옛 가사를 잘 지었는데, 그 賦는 더욱 원한이 어리면서도 처절하게 아름다운 기교가 많다. 진실로古今을 통틀어서 가사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수가 될 사람이 없었다. 애석하구나, 중국에도 역시 악곡(聲), 연주(弦), 노래(唱)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唐史》에 이르기를, “이하의 악부는 수십 편은 雲韶를 연주하는 여러 악공들이 모두 관악기와 현악기로 합주하였다.”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李益의 詩名은 이하와 서로 같아서 매번 한편이 이루어지면 악공이 다투어 뇌물을 주어서 얻어서는 聲歌로 입혀서 천자에게 바쳤다.”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원진의 시는 종종 악부에 퍼졌다.”라고 했다.

《舊唐史》에서 또한 이르기를, “武元衡이 오언시를 잘 지었는데 일 꾸며내기 잘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여 현악기와 관악기의 연주에다가 가사를 입혔다.”라고 하였다. 또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에, 開元 연간(唐玄宗)에 시인 왕창령(王昌齡), 고적(高適), 왕지환(王之渙)이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梨園의 악관이 또한 기녀들을 燕子樓에 불러 모으자 세 사람은 몰래 약속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詩名에 뛰어나나 그 우위가 정해지지 않았소. 시험삼아 여러 악공들이 노래하는 시를 보고서 우열을 가립시다.”라고 하였다. 한 악공이 왕창령의 絕句 두 수를 불렀다. “차가운 빗물은 강물 따라 밤새 뒤편에 흐르고 새벽녘에 손 보내는 초나라 범선은 외롭구나. 만약 낙양의 벗들이 문안하거든 한 조각 얼음 같은 맑은 마음이 옥병 속에 있다 이르게.”라고 하였고, “새벽같이 청소하니 궁궐문 열리고, 억지로 둥근 부채 들고 함께 서성거리네. 옥 같은 얼굴이 한겨울 갈까마귀 보다 못하니 갈까마귀는 그래도 昭陽宮의 아침 햇살을 받고 오거늘.”이라고 하였다. 한 악공이 고적의 절구를 노래하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눈물이 가슴을 적시나니, 당신이 보냈던 옛 편지를 읽어 봅니다. 깊은 밤 누대

는 어찌나 적막한지, 그래도 이곳은 揚子雲(揚雄)이 살던 곳이라고.”라고 하였다. 왕지환이 말하길 “아름다운 기녀가 만약 내 시를 노래하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감히 당신들과 우열을 다투지 않겠소.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줄지어 내 평사 아래에 절을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기녀가 노래하기를, “누런 모래가 멀리 흰 구름 사이로 일어나고, 한 조각 외로운 성곽은 만 길의 산 같네. 오랑캐의 피리소리는 하필 버드나무를 원망하는가? 봄바람은 玉門關을 넘지 못하네.”라고 했다. 왕지환이 두 사람을 야유하며 말하기를, “촌사람들이야, 내말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것으로써 당나라 악공들이 장시 이름난 문사들의 시구를 취해서 歌曲에 넣은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대개 통속적인 것이다. 蜀王 衍이 嘉王 宗壽를 불러 宣華苑에서 술 마시며 궁인 李玉簫에게 명하여 자신이 지은 宮詞를 노래 부르게 하였다. “화려하게 오색찬란한 구름 떠있고 宣華池의 달은 화려한 봄빛이네. 달빛 연못물처럼 궁전을 비추는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정말로 미친 사람 모습이네.”라고 하였다. 五代 시대에는 그래도 이러한 詩風이 있었으나 오늘날엔 없어졌다. 근세에는 陶淵明의 <歸去來>, 李白의 <把酒問月>, 李賀의 <將進酒>, 蘇軾의 <前後赤壁賦>를 취해서 聲律을 알맞아 입혔으니, 이것은 그 아름다움에 은연중에 맞아떨어진다.

<References >

1. Xu Xinyi. *Bijimanzhi xiaojian*.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81.
2. Wang Zhuo. *Bijimanzhi*.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91.
3. Yue Zhen. *Bijimanzhi xiaozheng*. Chengdu: Bashu Book, 2000.
4. Yue Zhen. “Bijimanzhi de xiaogai ji qijiazhi”. *New Horizons from Tian Fu* No.6, (2001).
5. Lee, Tae-hyoung. “A Study on 《Bi Ji Man Zhi》 Notes and Com-

- ments Ci Poetry”. *Jungguk Eomun Nonyeok Chonggan* Vol.24, (2009.1).
6. Lee, Tae-hyoung. “A Study on the Wang Zhuo’s poet, poetry and music rel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4 No.1, (2011.6).
7. Shin, Hyun-seok. “A Study on the Ci literature of Wang Zhuo”,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15, (1996).

<참고문헌>

1.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2.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3.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4. 岳珍, 〈碧鷄漫志의校改及其價値〉, 《天府新論》, 2001年 第6期.
5. 이태형, 〈시대현실을 반영한 사론서 《碧鷄漫志》初探〉,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4집, 2009.1.
6. 이태형, 〈王灼의詩·詞·樂關係考察〉, 《국제지역학논총》, 2011.6.
7. 신현석, 〈王灼의 詞學論 考〉, 《중국인문과학》 제15집, 1996.

<Abstract>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e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지
(《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 literature),
사학유과(Schools of ci literature)

